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자료

- 일 시 : 2018. 8. 28.(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자 : 윤인석(위원장), 김문수,
김연희, 김이순, 부길만,
송기한, 신안준, 오용섭,
이광표(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해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따라 회의 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의결방식)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제157호 「환구단」 주변 현상변경(롯데백화점 증축)	3
---	----------------------------------	---

【검토사항】

2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사적 지정 검토	7
3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문화재 등록 검토	16
4	「동국대학교 석조전(명진관)」 문화재 등록 검토	24
5	등록문화재 제92호 「서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명칭변경 검토	32

【보고사항】

6	문화재 등록구역 오류정정 보고 (등록문화재 제724호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35
---	--	----

심 의 사 항

1. 사적 제157호 「환구단」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57호 「환구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증축(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계획에 의한 현상변경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157호 「환구단」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증축(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주)호텔롯데 · 롯데면세점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157호 「환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번지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번지 외 6필지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88m 이격,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구역
 - 현상변경허용기준 : 개별심의
 - 신청내용 : 롯데백화점 · 면세점 부속건물의 서측벽면 엘리베이터 3기 추가 설치
 - ※ 층수 및 외장마감의 '2안'은 현지조사 의견(2018.08.16.) 반영하여 보완 한 사항임
 - 구 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변동 없음)
 - 면 적
 - 건축면적 : (당초) 14,755.19㎡ (변경) 14,800.16㎡ (44.97㎡ 증)
 - 연 면 적 : (당초) 318,857.03㎡ (변경) 319,891.34㎡ (1,034.31㎡ 증)
 - 최고높이 : 105.50m(변동 없음)
 - 층 수 : 지하 3층, 지상 25층(변동 없음)
 - 증축구조 : 철골구조
 - 증축수량 : 엘리베이터 3기 (3,992×10,514mm)

- 증축층수(엘리베이터)
 - 1안 : 지상 3층 ~ 지상 25층
 - 2안(보완) : 지상 3층 ~ 지상 19층
- 외장마감
 - 1안 : 석재, 유백색 폴리카보네이트 마감
 - 2안(보완) : 기존 건축물 디자인 적용(석재, 인조석, EPS블럭 등)

라. 현지조사 의견(2018.8.16.) : 문화재위원 000, 000

- 현재 제안 된 엘리베이터 3기가 환구단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므로, 증축될 엘리베이터 설치 시 전체 외관의 시뮬레이션을 현재 높이로 증축했을 경우와 보세 창고가 위치 한 층(18층, 19층) 까지 증축 했을 경우도 나누어 실시 할 것
- 또한 증축부 외관을 현 건물의 PC패널 외관을 사용하고 현재 증축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2기의 메탈 클래딩 외관도 PC패널로 시뮬레이션 할 것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증축부 층수는 1안, 외장은 2안으로 하되, 기 현상변경(15년) 허가한 빌딩 증축 사항을 반영한 이미지 투시도 등을 제출하고, 관계전문가 자문받아 시행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검 토 사 항

2.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의 지정 검토 보류 ('18.3.23)건에 대하여 사적 지정여부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보류사유('18.3.23)	보충자료 제출('18.8.22)
임시수도가 부산에 자리 잡았을 때 정부기관의 시설 분포, 대통령 임시관저 주변에서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시설, 부서들과 관계 등 종합적 배경에 근거한, 사적으로서 중요성이 제시되어야 함	1. 피란수도 부산의 공간구조와 주요시설 분포조사 2. 피란수도가 주요사건과 정부기관 시설 및 역할 3. 피란수도가 대통령관저에서의 주요업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임시수도 대통령관저(臨時首都 大統領官邸)」

* (현재)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3호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가념로 45

(3) 지정신청 명칭 : 「임시수도 대통령관저(臨時首都 大統領官邸)」

(4) 지정신청 범위 : 불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건물 1동(지상 2층/연면적 437.7m²) * 보호구역 1필지 4,774.2m²

(5) 관리단체(안) : 부산박물관

(6) 신청사유

- 경상남도 도지사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1926년 8월 조적조 2층으로 건립되었으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하였음.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관사 건축으로서 당시의 모습이 대부분 보존되고 있어 근대기 건립된 관사건축의 대표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등

건축사적 의미와 함께 한국전쟁기 임시수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되면서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라. 검토의견

- 지난 제3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18.3.23.) 검토 과정에서 요청한 추가 자료에 대해 부산시가 보완자료를 제출한 사항으로 피란기 임시수도 부산의 공간구조 속에서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기능, 역할,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사적으로서의 가치 판단에 중요한 기준과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명칭은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로 함.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라. 지정조사 보고서(조사일자 2018.2.2.)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8. 2. 2.(금)
-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000, 000 / 문화재전문위원 000

1. 문화재 종류

- 사적
 - 임시수도 대통령관저(臨時首都 大統領官邸)를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임시수도 대통령관저(臨時首都 大統領官邸)
 -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釜山 臨時首都 大統領官邸)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45'에 위치한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기능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된 곳이다. 동 건물은 출입구인 현관이 북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진입을 위한 정문이 위치하고 있고 정문의 우측에는 경비실 겸 관리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관저 배면으로는 한 때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관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전시관이 위치하고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건물은 본래 1926년 '경상남도지사 관사'로 건축된 관사로 당시 경상남도청사가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해옴에 따라 관사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경남도청, 부산지방법원 등 일종의 행정타운을 형성되었다.
- 한국전쟁 당시 부산이 임시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외교활동과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었던 역사적 장소이다.
- 1983년 경상남도 청사가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산시에서 인수하여 1984년 '임시수도기념관'으로 개관하여 현재 대통령 유품 등 피란수도 당시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2002년 건축적 가치와 함께 임시수도의 대통령관저로 사용된 헌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 최근, 부산시에서는 ‘6.25 전쟁기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피란과 관련된 건축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부기능수행’에 대한 유산으로 ‘임시수도대통령관저’를 대상문화재로 선정하였다.
-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소위, 일양절충식(日洋折衷式) 형태의 건물로 붉은 벽돌로 외벽을 구성하는 등 일제강점기 건립된 관공서 건물의 전형적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내부공간의 경우에도 소위, 중앙에 위치한 속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 실들을 배치하는 등 근대기 서양식 삶을 지향했던 관사의 공간구성 특징을 잘 보여준다.
- 내부공간은 속복도를 중심으로 전면 우측편은 공적영역, 좌측편은 보조영역, 속복도의 후면은 사적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층에는 다다미방을 배치하여 손님 접대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는 조적조와 목조가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지붕가구는 서양의 트러스와 혼합된 소위, 절충식의 지붕틀로 구성하였다. 지붕의 형태는 박공지붕과 모임지붕이 혼용하고 일식기와를 사용하였다.
- 또한, 재료의 사용에 있어 외부의 조적벽은 붉은 벽돌을 이용하여 화란식 쌓기로 축조하였으나 내부구조는 일본식 목구조를 사용하는 등 건축구조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근대기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로 사용된 이후, 1983년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되기까지 도지사관사로 사용되면서 내부공간이 일본식 주거공간인 다다미방에서 온돌방 등으로 변형되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시설의 증축 등으로 다소의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4년(구 경남지사 관사 보수공사)과 2000년(해체수리복원공사) 두 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가 있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지난 2000년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일부 건물의 변형으로 원형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이 반려되어 지난 2002년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2016년 진행된 현황조사를 통해 1926년 최초 건립 당시의 건축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고 또한, 이미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모습대로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다.
- 따라서 관사 건축으로서의 건축적 가치와 함께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로 사용하면서 국방, 외교, 정치 등 각 방면에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 현장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장소로 그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고 역사적 가치 또한 충분하여 사적으로 지정,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명칭	시대 연대	구조 형식 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면적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일제 강점기 1926	조적조+ 목조/ 일일절충식	4,774.2㎡	전시관	부산시 서구 임시수도 기념로 45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 박물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473.7㎡						
			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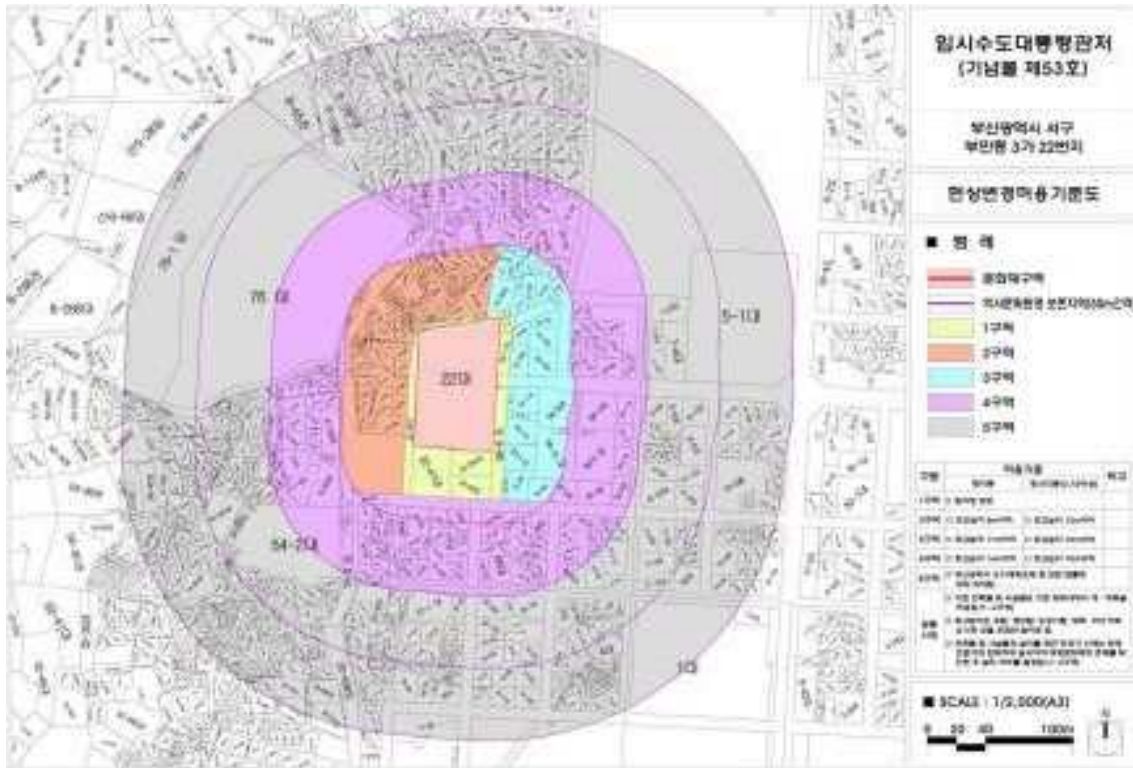
지 적 도 (1:1,500)



위 치 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 의견 : 현재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3호로 보존, 관리되고 있어 사적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의 허용기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된다.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3호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100m이내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200m이내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4구역).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함(1~5구역).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지정 대상물명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사용용도	원) 부산광역시 기념물 현) 사적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45		용도지역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소유자	부산광역시		국유[], 공유[√], 사유[]	
문화재적 특 징	- 한국전쟁 당시 부산이 피난수로서 임시수도의 기능을 수행할 때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하였던 건물로 2002. 5. 9.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3호로 지정 - 지난 2000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당시 일부 건물의 변형으로 원형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신청이 반려됨. - 그후, 현황조사(2016.8.-2017.3.)를 통해 1926년 건립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소실된 부분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음.			
보존관리 현황	보존상태	양호		
	관리인력	2명		
	보수관리 실적	○ 임시수도기념관 해체수리공사 : 2000.04.-2002.11 ○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3호 지정 : 2002.5.9. ○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보호구역 지정 : 2008.9.4. ○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2011.8.31.		
	기타	○ 동 건물이 갖는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관사 건축의 특성과 피란기 역사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 및 형태와 공간을 최대한 원형으로 회복할 계획임.		
활용계획	목 적 · 필 요 성	문화재보존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내 용	○ 역사문화유산의 경우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주변 경관과 적절히 조화된 복원, 정비계획이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이들 유산이 갖는 가치를 보존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추세임. ○ 이에,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적, 건축사적 의미와 함께 피란수도 유산이 갖는 역사교육 장소로의 활용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일제강점기 건립된 도지사관사 외 인근 관사 부지를 매입하여 근대기 관사 건축을 테마로 한 전시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임.		
지자체 검토의견	종합의견	○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건립 년대가 확실하고 일제강점기 건립된 관사건축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도면 자료가 남아 있는 등 당시 건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특히, 한국전쟁기간 동안 임시수도의 대통령관저로 사용되면서 국방과 외교 및 정치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산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음.		

9. 종합 의견

- 금번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한국전쟁 기간 중 피란수도인 부산에서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역사적 공간으로서 건축물이 갖는 가치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건립된 기타 관사건물과 비교할 때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부산광역시에서 동 건물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신청 대상문화재에 포함시키는 등 피란기 근대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므로 현재의 부산광역시 기념물에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함께, 과거 소실된 부분과 ‘임시수도기념관’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시와 관람시설 설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형된 내부공간에 대해서는 관리단체(부산박물관)가 제출한 보존·정비 활용계획(안)에 따라 원형복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당해 건물의 역사적 가치는 건물보다 건물이 안고 있는 역사에 있으므로, 역사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차원의 복원과 유지관리계획이 필요하며, 역사의 현장 보존은 당해 건물 뿐 아니라 주변의 도시적 상황도 중요하므로 당해 건물 주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도 사적지정여부에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판단된다.

3.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의 문화재 등록 검토 보류('15.2.10)건에 대하여,
근현대 교육시설 일제조사('17년) 이후 2차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8.7.12.)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보류사유 :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이루어진 후 처리('15.2.10)

* 근현대 교육시설 일제조사를 통한 가치평가 : B등급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남대학교 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640
 - 용도 : 교육시설
 - 소유자 : 충남대학교
 - 수량 및 면적 : 1동(지상3층) 건축면적 763.64㎡, 연면적 2,299.7㎡
 - 건립시기 : 1958년 건립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 (3) 기타사항 : 등록 명칭 검토 필요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5.1.21.) >

○ ○○○ 문화재위원

- 본 건물 하나 만 본다면, 건립 후 50년의 연한을 만족하며 충남대학교의 역사, 대전의 지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유구이므로 문화재등록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당시에 건립된 비슷한 유형의 유구들이 상당히 많이 등록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므로 동일유형의, 그리고 동일 건축가의 작품들과 비교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문화재전문위원

-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나름의 건축적 특성이 있음. 그러나 1950년대 1960년대의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이천승의 다른 작품과의 비교함과 동시에 당시의 대학 건축물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 ○○○ 문화재전문위원

- 본 문리과대학 건물의 가치는 1958년 해방이후 순수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을 잘 반영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음. 편복도 건물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각 단위모듈에 의한 구조시스템을 적용하였음.
- 다만, 건물 전체적인 향이 북향을 하고 있는 만큼 건물의 북쪽에 캐노피를 둔 주출입구를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양 단부를 필로티로 처리하고 출입구를 설치하고 북쪽으로 복도를 둔 것은 건물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한 건축가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서 양 단부의 출입구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홍보팀 등에서 사용하고 있어 막혀있는 동쪽 단부 공간은 원래대로 복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면에 부착된 화강석 또한 출입구의 정면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존의 가치가 높음.

마. 추가 조사 의견(2018.7.12) : 문화재위원 000, 000 / 문화재전문위원 000

- 본 조사 대상 유구는 2015년 2월 2일 1차 현장조사를 마친 건축물임.
- 1차 조사 당시, 1950년대 후반에 지어진 대학교 교사로서 한국근대건축사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지닌 것으로 판단하였음. 다만, 이 건물이 세워지던 시기에 비슷한 건물이 다수 세워졌으며 건축설계자인 이천승의 다른 작품들도 있으니 시일을 가지고 비교,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조사자 모두의 의견이었음.
- 그 사이 전국의 교육시설 유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등록대상물 선정에서 본 유구가 등록검토 우선순위의 상위로 결정된 바, 2018년 7월18일 재방문하여 2차 현장 확인하였음. 유구의 상태를 살펴보자면, 내부 벽체의 마감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 그리고 건물 동측 단부 2, 3층에 병원 본관과 연결하는 브리지가 신설되었으나 대상 건물의 본체에는 연결을 위한 개구부만을 개설하였고 외벽의 마감으로부터 브리지를 이격시켜 설치함으로써 원래의 구조체 유지를 배려한 기본적인 조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제정 취지인, 상황에 맞게 증개축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근대건축유산 보존의 길을 넓히는 데에 이바지 하도록 하였던 범주 내의 변화였음을 감안하여 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추가 조사 의견에 대해 1차 현장조사('15.1.21.)에 참여한 전문가(000 · 000 문화재전문위원) 모두 동의하였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충남대학교 병원 행정동 (구)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2. 용 도 : (현) 의료시설(병원 행정동) (원)교육시설
3.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640
4. 소유자 : 충남대학교 총장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 준공일 : 1958년 8월 31일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763.64㎡, 연면적 2,299.7㎡
 - 층수(높이) : 3층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위원 (2015.1.21.) >

1) 개요

- 광복 후 대표적 한국건축가(이천승)의 설계에 의한 작품으로 파악되어 있다. 충남대학교의 초기 캠퍼스 시기에 문리과대학의 본부로, 사무실 일부와 교사로 사용되다가 유성으로 캠퍼스가 옮겨 간 후에 현재 충남대학교 병원의 행정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6.25 전쟁 후, 교육시설의 대부분은 단기간에 건축하기 쉬운 모더니즘 양식의 건물들로 지어졌다. 그러면서도 건축가들의 개성과 특성이 부분적으로 반영되게 마련인데 이 건물에도 보편적인 모더니즘의 디자인 기조로 하고 있으면서 계단 부분, 창호 부분에 설계자가 당시에 즐겨 쓰던 기법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당시 교육시설 건물에 많이 사용되던 편복도 형식의 평면에 복도 바닥 근처와 상부에 환기창을 두는 등, 20세기 중반에 자연환기 위주의 건축환경 처리 방법 등이 그대로 잘 남아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각 방의 출입문 교체를 제외하면 복도천장의 몰딩 존치, 외벽의 기존 창을 존치시켜 두고 새로운 창을 내부에 덧대는 등 원래의 재료와 마감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평면, 입면의 모든 건축적 요소가 원형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병원의 행정동으로, 비교적 안정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 자체적으로 1995년부터 충남대학교 사적 1호로 지정하여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관리하며 학교의 유적지로 보존·활용하고 있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광복 후, 특히 6.25 후의 교육시설 건물들이 대량으로 건축되는 현상이 일어났으므로 당시의 건축물들과 정밀하게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본 건물 하나 만 본다면, 건립 후 50년의 연한을 만족하며 충남대학교의 역사, 대전의 지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유구이므로 문화재등록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만, 지금부터는 이 당시에 건립된 비슷한 유형의 유구들이 상당히 많이 등록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므로 동일유형의, 그리고 동일 건축가의 작품들과 비교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구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본부

< 000 문화재전문위원 (2015.1.21.) >

1) 개요

- 충남대학교는 1952년 5월 25일 독립 충남대학교로 설립인가를 받고 문리과대학과 농과대학, 공과대학 등 3개의 단과 대학으로 시작하였다. 대상 건축물은 충남대학교 캠퍼스가 문화동에 있을 당시인 1958년 준공된 건물로서 현존하는 충남대학교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설계는 당시 우리나라 건축을 이끌면서 활발한 작업을 하였던 이천승에 의한 것이다. 지금은 충남대학교 병원의 행정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장방형의 긴 평면을 갖고 있는 건물로서 출입구가 중앙에 있지 않고 우측(서쪽)면의 필로티를 통해 진입이 되는 독특한 건물이다. 중앙에 현관이 없고 긴 장방형의 건물로 상부로 오르는 계단실이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다. 북측으로 편복도를 두고 각각의 기능을 갖는 단위 공간은 남쪽에 두어 상당히 기능에 충실한 공간 구성을 갖고 있다. 입면에서의 독특한 특징은 전체적으로 수직 기둥과 창문을 통해 분절되어 모듈화한 입면 구성을 갖고 있다. 또 입면에서의 독특한 점은 동측과 서측 양쪽에 화강석 쌓기를 통해 철근콘크리트 면의 벽면과 대비된 입면 효과를 얻고 있다.
- 아주 단순한 장방형의 평면에 있어서 출입구를 중앙이 아닌 서측으로 두면서 양쪽에 수평으로 누워 있는 계단실을 두고 공간을 활용하는 등 매우 독특한 평면 구성을 갖고 있다. 전체적인 입면 구성에 있어서는 창문과 기둥의 모듈화된 평면 구성에 따라 매우 균형 있는 입면을 얻어내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이 건물은 1958년 8월 31일 준공되어 충남대학교 문리과 대학 건물로 사용되었다. 1963년 12월 12일 충남도청으로부터 충남대학교로 소유권이 이관되었다. 충남대학교가 유성으로 이전한 후 1995년 4월 충남대학교 교사박물관으로 개관 준비를 하였다. 이에 따라 내외벽의 도색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5년 충남대학교 병원 행정동으로 사용이 되면서 내부 칸막이가 철거되었다. 한편 새로운 용도로의 전환에 따라 칸막이가 설치되었고 단열과 방법을 위한 이중 창틀이 설치되었다. 노후화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으며 건물의 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의 건물로 사용되다가 충남대학교 병원 행정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로서 문화재 보존 활용의 여건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 이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데 있어서 소유주인 충남대학교 총장의 동의를 받아놓고 있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1950년대 지어진 부산대학교 본관과 비교하여 조형성과 근대적 특성 등이 다소 떨어지나 평면구성 등에 있어서는 흥미로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위해서는 당시에 축조된 학교 건물과 이천승의 다른 작품과의 종합적인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나름의 건축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1950년대 1960년대의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이천승의 다른 작품과의 비교함과 동시에 당시의 대학 건축물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이천승의 다른 작품을 등록하기 전에 이 건물부터 등록하게 될 때 이 시기의 다른 건축물과의 가치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충남대학교의 현존하고 가장 오래된 건물이니 만큼 추후 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본다.

< 000 문화재전문위원 (2015.1.21.) >

1) 개요

- 충남대학교는 1952년 5월 25일 독립종합대학으로 설립 인가되었으며, 처음 캠퍼스가 세워진 곳이 이곳 문화동의 보운캠퍼스였으며 문리과대학, 농과대학, 공과대학이 개설되었다.
- 본 건물은 당시 충남대학교의 문리과대학 건물로 1958년 신축하였던 건물로서 현재 충남대학교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고 현재는 충남대학교 병원 행정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 남쪽에 나지막한 산을 등지고 북향한 대지에 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는 까닭에 건물도 주향을 북향으로 하고 동서로 길게 배치되어 있다.
- 본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는 이천승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공은 (주)대림산업에서 하였다.
- 충남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역사성을 고려하여 1995년 본 건물을 충남대학교 교내 사적 1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 1958년 신축이후 큰 변화는 없이 원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 마감재를 바꾸거나 원래 창호 바깥으로 알루미늄 창호를 덧댄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본 건물은 동서로 긴 장방형 건물로 대지에 맞춰 북향하고 있으나 편복도 형식으로 복도를 북측에 두고 실들을 남쪽에 배치하였다.
- 전체적으로 1900년대 서구 유럽의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양식을 따르는 단순한 형태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모듈을 기본으로 각 공간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수평성과 수직성이 강조되고 있다.
- 교사 건물로는 특이하게 중앙에 출입구를 두지 않고 서쪽 단부에 주출입구를 두고, 동쪽 단부에는 부출입구를 두었다.
- 서쪽 1층의 주출입구는 외부로 돌출된 캐노피형식이 아니라 필로티 형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양 단부의 계단실이 건물의 단부가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렇게 함으로써 건물 계단실의 바깥 단부에는 대공간을 만들어 복도를 포함한 두 베이(BAY)를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1층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전면(북쪽)에 네 모서리를 잘 다듬은 화강석을 면을 다듬지 않고 허튼층으로 쌓아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 신축 당시의 사진을 보면 건물의 동쪽 1층 역시 필로티로 처리하여 좌우 대칭형식으로 양 단부가 처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동쪽 1층 필로티 공간이 내부공간으로 바뀐 것과 외부창호를 알루미늄 샷시로 교체한 것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본 건물의 외관은 잘 유지되고 있다.
- 내부 공간은 실내의 마감재를 모두 현대식으로 교체하였고, 천정은 텍스로 마감하였다. 그렇지만 건물의 구체를 변형하거나 훼손하지 않았으므로 원형을 복원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로 아직까지 크게 노후화되거나 하지는 않았고, 지속적으로 건물을 개보수하며 잘 관리하여 상태는 좋은 편이다.
- 옥상의 계단실 옥탑의 경우도 원래대로 잘 유지되고 있으나 창호는 목재 그대로 남아 있는 까닭에 부식이 많은 편이다.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본 건물은 충남대학교 자체적으로 사적으로 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건물로 처음 개교할 당시의 건물이 남아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충남대학교에서의 역사적 가치는 매우 높은 편이다.

- 현재 본 건물은 대학교가 아닌 충남대학교 병원에 속한 상태로 건물 주변은 병원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 충남대 자체적인 보존계획(충남대학교 사적 1호)에 따라 건물의 현황보존이 어렵지는 않겠지만 향후 병원의 확장과 개발에 따른 훼손의 우려가 있기도 하다.
- 현재도 2층 병원장실의 확장하려는 계획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 · 검토

-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학교 교사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건축된 건물들로 조적조 건물에 트러스 목조 지붕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 해방 이후의 교사 건물들도 50년 기준에 부합하여 그 대상이 되고 있다.
- 현재 해방 이후 건물로 등록된 학교 교사 건물로는 부산대학교 구 본관(등록 641호)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등록 644호),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등록 640호) 건물 등이 있다. 이들 건물은 각 학교의 본관 건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건축적 조형성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하였으며, 또한 당시를 대표하는 건축가 김중업, 강봉진, 김한섭 등이 설계한 대표적인 작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본 건물은 충남대학교가 1952년 개교할 당시 본관 건물은 아니었다. 당시 본관 건물은 이미 사라졌고, 1958년 문리과대학 건물로 건축된 건물로 다소 격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천승 작가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이 건물을 이천승 작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본 건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은 일시 유보하고, 남아 있는 이천승 건축가의 작품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본 문리과대학 건물의 가치는 1958년 해방이후 순수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을 잘 반영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편복도 건물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각 단위모듈에 의한 구조시스템을 적용하였다.
- 다만, 건물 전체적인 향이 북향을 하고 있는 만큼 건물의 북쪽에 캐노피를 둔 주출입구를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양 단부를 필로티로 처리하고 출입구를 설치하고 북쪽으로 복도를 둔 것은 건물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한 건축가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 따라서 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서 양 단부의 출입구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홍보탑 등에서 사용하고 있어 막혀있는 동쪽 단부 공간은 원래대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면에 부착된 화강석 또한 출입구의 정면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존의 가치가 높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비록 현재는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명칭이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이니만큼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그 명칭은 ‘대전 구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으로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4. 「동국대학교 석조전(명진관)」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동국대학교 석조전(명진관)」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국대학교 석조전(명진관)」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18.7.19.)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근현대 교육시설 일제조사를 통한 가치평가 : A등급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동국대학교
- (2) 대상문화재 : 동국대학교 석조전(명진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용 도 : 교육시설
 - 소 유 자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 수량 및 면적 : 1동(지하1층, 지상5층) 건축면적 1,277.12㎡, 연면적 4,834.27㎡
 - 건립시기 : 1954년 7월 8일 착공, 1958년 12월 30일 준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3) 기타사항 : 등록 명칭 검토 필요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8.7.19.) >

○ ○○○ 문화재위원

- 한국전쟁 후, 전쟁복구기에 상당한 규모의 교사를 건축하였던 사학의 상징건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의 초창기 작품으로, 사용하는 대학 당국의 꾸준한 관리와 원형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어우러져 있는 유구로서 건물의 내외부 모두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원칙하에 문화재로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 문화재위원

- 동국대학교 구 본관은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적 건축가로 평가되는 송민구(1920~2010년)에 의해 설계되어 1954년 착공된 후 1958년 완공되었으며, 이후 대학의 대표적, 상징적, 역사적 건물로 역할
- 기본적 건축형식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외벽은 주로 거친 표면의 화강석 완자쌓기로 마감하였으며, 평면 및 입면을 전체적으로 대칭형으로 구성
- 5층 규모의 탑상형 중앙부를 중심적 요소로 3층 규모의 박공지붕 부분이 양측에 연결, 배치됨으로서, 전체적으로 평면 및 입면을 대칭형으로 구성하고 대칭성, 중심성, 정면성을 강하게 표현
- 전체적으로 대학 본관으로서 전통적 건축형식이었던 튜더 양식(Tudor Style)의 석조 건물을 기본형식으로 하였지만, 수직 또는 수평의 기하학적 요소를 강조하며 외관을 단순하게 구성
- 조사대상 건물은 이상과 같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 군산대학교 교수

- 한국인 건축가에 의해 한국건축이 본격화되는 1950년대에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며 동시기에 여러 대학에서 지어졌던 주요 대학교 건축물 중 하나로서 한국 근·현대건축사에서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건축물로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동국대학교 명진관 (구) 동국대학교 본관
2. 용 도 : (현) 교육시설 (원) 교육시설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교내
4. 소유자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준 공 일 : 1954년 7월 8일 착공, 1958년 12월 30일 준공
 - 수량 및 면적 : 건축면적 1,277.12㎡, 연면적 4,834.27㎡
 - 층수(높이) : 지하 1층, 지상 5층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위원 (2018.7.19) >

1) 개요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서 필동에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대학본부로 건축한, 이 학교의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건축 당시에는 석조전으로 명명하였다. 지금은 대학본부의 기능을 현 본관으로 옮겨졌으며 이 건물은 명진관으로 불리며 문과대학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 건축가 중 모더니스트로 알려진 송민구의 설계로, 그의 유일한 양식주의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은 화강석 습식쌓기로 마감하였다. 벽면의 마감도 정교하려니와 창과 출입구 테두리 부분의 마무리도 세밀한 몰딩 장식을 두어 건물 전체적으로 장중함을 자아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튜더 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단, 배면의 3,4층에는 이러한 석재마감과 어울리는 의석조로 외벽을 처리하였다.
- 주출입구는 건물 중앙의 북측에 튜더 아치가 설치된 포치 부분에 있으며 여기와 이어지는 로비와 중앙 계단실은 건물의 꼭대기 옥탑까지 연결되어 수직성을 강조하며 건물의 위용을 더하고 있다. 옥탑의 상부는 배틀먼트(여장, 女牆)가 설치되어 있다. 내부는 남쪽 부분에 강의실과 연구실 등의 개실이 있고 북쪽에 설치된 편복도가 양쪽 끝의 계단실 강의실군과 이어지는 H자형 평면을 하고 있다. 복도와 개실들 사이에는 고창을 설치하였다. 이는 당시에 세워진 학교 건축에서 공통적으로 마련하던 방법이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부는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내부도 벽체 도색, 일부 출입문 교체, 일부 개실의 천정재료, 외벽 창호재료 교체 등의 변화가 있을 뿐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학교의 교사로 사용되며 기본적인 유지관리와 원래의 모습에 가까운 창호의 교체 등, 원 유구를 배려한 세심한 보수의 수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랫동안 이 대학의 상징 건물로서 역할을 담당한 이 건물은 대학 당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관리하여 왔다고 여겨진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대학의 교사(校舍) 활용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학교의 상징 건물이며 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하여 근대 유구로서 지켜 나갈 확고한 의지를 대학본부는 표명하고 있음.

다. 기타사항

- 이번 현장 조사를 계기로 대학 관리부서에서 보관 중인 건축관련 도서들을 수습하였는데 근대 동산분야 유물로서도 가치 있는 사료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 향후 문서보관고의 조사를 계속하여 관련 기록들 또한 문화재 등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동 시기에 건축된 교육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어 전국적 분포와 건축가별로 등록가능한 대상물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다른 대학교들에 건축된 고딕풍, 튜더식 교사로는 연세대학교 본관(언더우드관) 등, 고려대학교 본관, 이화여자대학교 본관(파이퍼 홀) 등이 있으나 모두 일제강점기에 건립되었다. 그리고 광복 후, 경희대학교 본관, 한양대학교 본관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 양식으로 지어진 특징들이 있다.
- 근대기에 들어 불교계에서 근대불교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명진학교, 혜화전문학교를 거쳐 광복과 한국전쟁 후 불교계의 뜻을 모아 필동에 사학을 세우면서 송민구에게 설계의뢰 하였다. 그런데 그는 근대식 건축교육을 받고 실무경력을 쌓으며 합리적 건축양식을 추구하던 모더니스트였다. 당시 대학의 건축을 양식주의 디자인으로 설계하던 조류에 따랐겠지만(또는 그러한 요구를 건축주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지만) 입면과 평면의 비례, 창호의 구성, 개실의 척도설정 등, 건축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건축가가 의도하였던 비례감각을 발견할 수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한국전쟁 후, 전쟁복구기에 상당한 규모의 교사를 건축하였던 사학의 상징건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의 초창기 작품으로, 사용하는 대학 당국의 꾸준한 관리와

원형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어우러져 있는 유구로서 건물의 내외부 모두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원칙하에 문화재로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동국대학교 구 석조전(명진관)

- * 아울러 이 건물 주변에 있는 과학관(근대건축-모더니즘-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건축 구조적으로 귀중한 유구들을 포함하고 있음)과 현 본관(리모델링 되어 있으나 과학관과 함께 이 대학교의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 건물이었으므로, 현 마감 안의 원래유구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의 등록 또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000 문화재위원 (2018.7.19) >

1) 개요

- 동국대학교는 1906년 불교계에 의해 설립된 명진학교로부터 기원된 이후 1946년 동국대학, 1953년 동국대학교로 각각 개편되었으며, 1947년부터 현재 위치인 서울 중구 필동 일대에서 캠퍼스를 형성
- 임시 가설건물 형식의 교사가 대부분이었던 당시 캠퍼스 상황에서 1953년 종합대학교 승격을 계기로 교세 확장에 따른 공간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954년 본관 신축을 추진
- 본관은 건축가 송민구에 의해 설계되어 1954년에 7월 착공된 후 11월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955년에 7월 정초식을 갖고 12월 상량식을 거쳐 1958년 12월에 완공
- 본관은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미군의 원조를 받았으며, 미군은 1955년 시멘트 40,000포대, 목재 100,000재(才) 등 당시 35,000달러에 해당하는 주요 건축자재를 제공
- 1958년 완공 이후 본관으로서 총장실, 행정실, 강의실 등으로 활용되다 현재의 본관이 신축된 이후 강의동으로 활용되며 명진관 또는 석조전이라 지칭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캠퍼스의 대표적, 상징적 건물로 역할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조사대상 건물은 동국대학교 구 본관으로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적 건축가로 평가되는 송민구(1920~2010년)에 의해 설계되어 1954년 착공된 후 1958년 완공
- 기본적인 건축형식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외벽은 화강석으로 마감하였으며, 5층의 탑상형 중앙부를 중심으로 3층의 박공지붕 부분을 양측에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대칭형을 구성
- 현관, 주출입구, 계단실, 부출입구 등으로 구성된 5층 규모의 탑상형 중앙부를 중심으로 강의실들이 편복도 형식으로 배치된 3층 규모의 박공지붕 부분이 양쪽에 연결됨으로서, 전체적으로 평면 및 입면이 대칭형으로 구성되고 대칭성, 중심성, 정면성을 강조
- 중앙부 탑상형이 중심적 요소로 현관의 대형 아치형 개구부와 장식적 기법, 나란히

- 형성된 2개의 수직적 연속창, 외벽 모서리에서 돌출된 부축벽 장식, 상단 파라페트의 장식적 기법 등에 의해 다른 부분과 대조되는 독특한 형태를 구성하며 중심성을 강조
- 수평적 형태로 구성된 양측 3층 규모 박공지붕 부분과 다르게 탑상형 형태와 수직적 연속창에 의해 수직성이 강조된 5층 규모 중앙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대칭성, 중심성, 정면성을 강조
- 외벽은 주로 거친 표면의 화강석 완자쌓기로 마감하고 후면 입면 2, 3층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 인조석 기법으로 마감하였으며, 창호 주변은 외벽의 거친 마감과 다르게 단순한 기법으로 장식, 마감
- 전체적으로 대학 본관으로서 전통적 건축형식이었던 튜더 양식(Tudor Style)의 석조 건물을 기본형식으로 하였지만, 수직 또는 수평의 기하학적 요소를 강조하며 외관을 단순하게 구성
- 1954~1958년의 본관 건축과정을 알 수 있는 공사 당시의 계약서, 도면, 품위철 등 관련기록물 일부가 최근 등록자료 준비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관련기록물과 자료도 추가 발굴 중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부 지붕, 내부 천정, 창호재 등 일부 마감재가 변경되었지만 외부와 내부 모두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유지관리 상태도 노후화가 심각한 부분이 없이 양호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학측에서 대학의 상징적, 대표적 건물로서 역사적,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재로서 건축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대학측에서 현재와 같이 강의동 용도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향후 외관을 중심으로 건축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갈 예정이므로, 문화재로서의 활용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대학 건물로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15건이 현존하며, 조사대상 건축물과 유사한 건축기법의 석조형식 건물은 이화대학교 파이퍼홀(등록문화재 제14호, 1935년 건축)과 토마스홀(등록문화재 제679호, 1935년 건축)이 사례

7) 등록가치의견

- 동국대학교 구 본관은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적 건축가로 평가되는 송민구(1920~2010년)에 의해 설계되어 1954년 착공된 후 1958년 완공되었으며, 이후 대학의 대표적, 상징적, 역사적 건물로 역할
- 기본적인 건축형식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외벽은 주로 거친 표면의 화강석 완자쌓기로 마감하였으며, 평면 및 입면을 전체적으로 대칭형으로 구성

- 5층 규모의 탑상형 중앙부를 중심적 요소로 3층 규모의 박공지붕 부분이 양측에 연결, 배치됨으로서, 전체적으로 평면 및 입면을 대칭형으로 구성하고 대칭성, 중심성, 정면성을 강하게 표현
- 전체적으로 대학 본관으로서 전통적 건축형식이었던 튜더 양식(Tudor Style)의 석조 건물을 기본형식으로 하였지만, 수직 또는 수평의 기하학적 요소를 강조하며 외관을 단순하게 구성
- 조사대상 건물은 이상과 같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 또는 서울 동국대학교 명진관 또는 서울 동국대학교 석조전

< 000 군산대학교 교수(2018.7.19) >

1) 개요

- 동국대학교 명진관은 한국전쟁 직후에 지어진 대표적인 대학교 본관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5층 규모에 외장은 석재로 마감함. 건축물의 외관은 고딕풍으로 디자인하여 대학교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음.
- 한국 현대건축의 선구자인 건축가 송민구(1920-2010)의 작품으로 1950년대 한국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며, 부산대학교 본관(1957, 김중업),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교사(1957, 김희춘), 중앙대학교 도서관(1959, 차경순), 정신여자고등학교과학관(1958, 김정수) 등과 같이 동 시기에 대학 캠퍼스에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가장 초기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외벽은 돌붙임으로 마감하여 단순화된 고딕양식의 석조 건축물에 가까운 육중한 외관을 나타내고 있음.
- 건축물 중앙 부분을 5층 규모의 사각탑 형태로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고 건축물의 앞뒤로도 돌출시켰으며 아치로 처리한 주출입구를 두어 전체적으로 중심성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음. 중앙 사각탑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고 좌우측 끝부분은 박공형태의 입면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로 돌출시켜 대칭성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음.
- 중앙 사각탑은 최상부를 성곽과 같은 형태로 처리하고, 좌우 외관은 석재 창틀의 수직창 3개를 연속시킨 개구부 형태와 벽체에서 나타나는 석재 쌓기 형태가 간결한 입면을 구성하고 있음.
- 내부 공간은 편복도에 면한 강의실, 열람실 등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음. 중앙부는 5층까지 내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동국대학교 명진관의 수리기록을 보면 197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물 내

부에 대한 보수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1981년에 진행된 창호 교체 공사와 2000년에 진행된 지붕 개보수 공사를 통해 현재와 같은 재료와 형태로 창호와 지붕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마감과 창호, 지붕 재료 등에서 변형이 확인되지만 지속적인 보수를 통해 건축물의 외관 및 전체적인 구성은 잘 보존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까지 신축 당시와 동일하게 대학의 교육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재단에서 건축물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동안 양호하게 관리해 왔던 점에서 미루어 볼때 보존관리 여건 및 환경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와 같이 대학의 교육시설로서 활용하면서 보존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동국대학교 재단이 건축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수립된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2018년 8월 현재까지 전체 등록문화재 중 학교 관련 건축물은 약 54건 정도임. 다수의 건축물이 일제강점기 건축물로 1950년대 이후 건축물은 소수임.
- 대학교 건축물로는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 소재하는 건축물로 약 12건의 등록문화재가 있음.
- 동국대학교 명진관은 등록문화재인 학교 관련 건축물 전체 및 대학교 건축물과 비교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한국인 건축가에 의해 한국건축이 본격화되는 1950년대에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며 동시기에 여러 대학에서 지어졌던 주요 대학교 건축물 중 하나로서 한국 근·현대건축사에서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건축물로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 구성과 마감 재료의 보존이 필요함.
- 내부 공간의 활용 과정에서 일부의 구조 변화가 필요할 수 있으나 가능한한 현재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동국대학교 명진관’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5. 등록문화재 제92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명칭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등록문화재 제92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의 명칭변경 제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등록문화재 제92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의 등록문화재 명칭은 건물의 고유명사를 사용한 것이나 ‘중앙정보부’라는 명칭은 건물의 등록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격적인 활용(‘18.10월 대국민 개방 예정)에 걸맞은 명칭 부여가 필요하여,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등록사유 : 7·4남북공동성명 발표된 역사적 장소성과 건축사적 가치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92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역사적인 장소, 건축가 나상진 설계

- (강당) 1962년 건립, 2층 200석 규모(연면적 466㎡,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 1층 객석 및 무대, 2층 객석 및 조정실
- (회의실) 1972년 건립, 2층(연면적 235㎡,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 1층 소회의실, 2층 대회의실

- ‘18년 10월 대국민 개방 목표로 활용계획 수립 및 시설보완 공사 중(조선왕릉관리소)

(2) 추진배경

- 해당 문화재의 성격과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칭변경 필요성 대두
 - 일반공개 예정(‘18년 10월)

(3) 변경내용

- (변경 전)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 (변경 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강당」

(4) 검토사항 : 문화재 명칭변경 타당성 등

라. 의결사항

○ 부결

- 중앙정보부 강당은 폭압적 기능을 담당했던 중앙정보부의 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건축물이나, 아픈 역사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기존 명칭을 유지하되, 필요시 7·4남북공동성명발표장을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출석 9명 / 부결 9명

보 고 사 항

6. 문화재 등록구역 오류 정정 보고 (등록문화재 724호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 보고사항

- 문화재위원회 심의('18.7.24.)를 거쳐 문화재 등록고시('18.8.6.)한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 군산시의 요청에 따라 등록구역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등록현황 : 건물 1동>

등록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	소유자 및 소재지
제724호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1동(지상2층), 건축면적 659.36㎡, 연면적 1,098.17㎡	1935년	(주)명진토건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2길 9(신창동))

□ 등록구역 정정

- (1) 신청인 : 군산시 *공문('18.8.23. / 군산시 문화예술과→근대과)
- (2) 신청사유
 - 당초 문화재 등록신청 구역을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가 인접한 토지(군산시 구영2길 7/‘월명토건’ 소유)까지 포함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 신청하여 등록구역 정정 필요
 - *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가 있는 지역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 건물 인접 부지도 등록구역에 포함, 활용성(접근성) 증대 등
- (3) 등록구역 정정사항
 - (당초) 건물 1동(지상 2층, 연면적 1,098.17㎡)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2길 9
 - (정정) 1,846.5㎡(2필지) * 건물현황(1동 2층, 연면적 1,098.17㎡)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2길 7 및 9
 - * 단, 편입지번(구영2길 7)에 위치한 건물(서해환경)은 문화재가 아님
 - 소유자 : (주)명진토건(건물·부지 소유)/ (주)월명토건(인접부지 소유)

□ 향후 계획

- 등록 정정고시(관보게재)를 통해 등록구역 오류 정정 예정

[붙임]

등록구역 현황도



[당초] 등록구역 : 적색 실선['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건물만 등록]

[정정] 등록구역 : 적색선(2필지 부지) *부지 내 건물() 포함

□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